

#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2화)



### “마음의 눈으로 보라”

<출전: 집아함경 제16:449경:1-115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어느 봄날 태조와 무학대사가 서로 농담을 하며 회롱삼매에 들었습니다.



대사님 누가 농담을 더 잘하는가 내기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 대사님은 꼭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와하하하 제가 졌습니다. 대사님~



중국의 시인 소동파의 일화 중에도 이와 비슷한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대사님 제가 앉아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대왕께서는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허허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찌서 같이 농담을 하지 않으십니까?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부처님으로 보이는 법이지요.



오호~ 그래요? 제가 보기에 대사님은 똥처럼 보입니다.



똥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어찌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중생은 언제나 대상과 함께 하고 대상과 하나로 어울리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면 대상을 선하게 보고 비열한 마음을 가지면 대상을 나쁘게 보게 되느니라...”

## 이렇게 들었다

## 대한민국의 파병

### 명분보다 슬픈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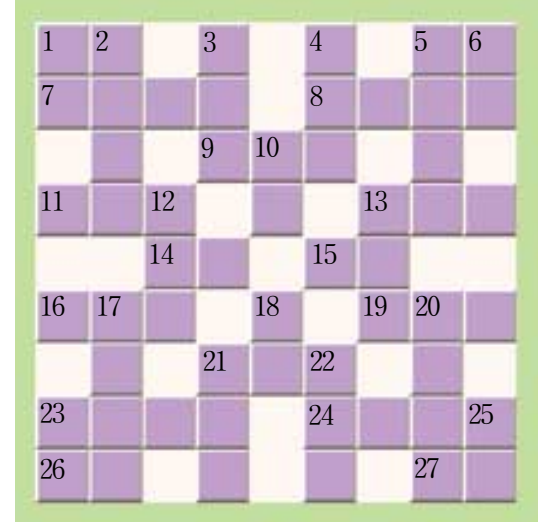
드디어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기로 했다. 이유는 한미 동맹관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유엔에서까지 이라크 결의안이 채택되어 명분도 얻었다고 한다. 선재는 차라리 ‘불순한 이라크 세력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는 편이었으면 조금은 낯뜨다는 생각을 했다.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약간의 명분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입김에 어찌지 못하는 우리의 슬픈 처지뿐이다. 선재는 그래서 파병이 안타깝다.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포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우리나라가 파병을 결정하도록 하는 일을 가장 큰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해 왔다고 한다. 이번만 아니다.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거나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했다는 보고나, 미<뉴욕타임스>가 윤영관 외교장관과 폴린 파월미 국무장관 사이에 ‘인쟁’이 있었다는 보도 등을 통해 우리를 계속 압박해왔다.

<좌왕경>에서는 “왕이 되어도 살생 하지 말고 남을 시켜 살생하지 말며, 한결같이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 아닌 것을 행하지 말라”며 왕이 굳게 지켜야 할 신념을 일러준다. <증일아함경>에서는 “민생이 모두 고통을 받는 것은 왕법이 부정하기 때문이고 민생이 모두 낙을 받는 것은 왕의 법교(法敎)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때문이다”라며 통치자의 책임 정도를 가능하도록 한다.

선재는 원칙적으로 파병을 반대하지만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면 가능한 적은 병력,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주둔했으면 한다. 반대 여론을 이끄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이다. 명분을 얻고 실리를 얻는 시점이 되면 슬그머니 반대여론을 핑계로 우리의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한다. 100점 맞고 부모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어린이의 모습처럼, 파병을 결정하자마자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대답을 기다리는 우리 나라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석실)



## 상식퍼즐

1. 고승을 높여 일컫는 말  
5. 한 나라의 경제  
7.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을 아울러 일컫는 말  
8.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함  
9. 선을 수행하는 큰스님  
11. 불로 조각한 불상  
13. 표를 검사하는 사람  
14. 육계 색 계 무색계  
15. 큰바위  
16. 절 아래 마을  
19. 짧은 시형식으로 가르침을 정리한 시집 같은 경전  
21. 계법을 맡아주고 수계해 주는 스님  
23. 대중들을 모아 법을 설함  
24. 열 두 가지 연기  
26.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27. 크게 성공함.

<444호 '교리퍼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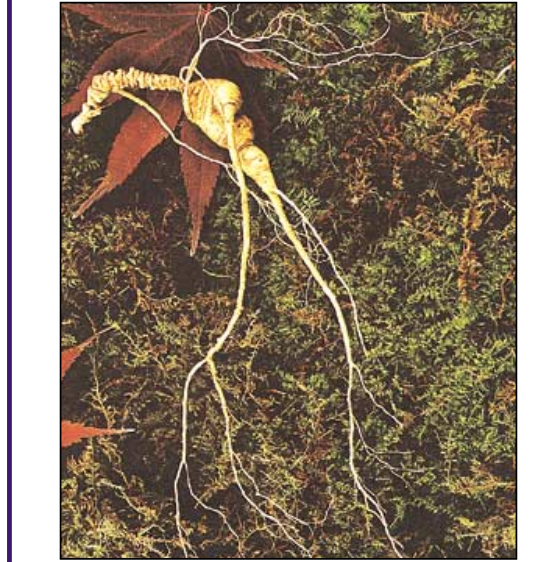
다	사	경	만	만	계
다	홍	치	마	부	유
서	장	옥	당	인	
발	원	문	근	무	덕
지	계	예	외		
세	시	기	압	시	주
심	대	승	심	변	
시	시	비	비	청	정
주	불	구	경	계	상

1.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 함 2. 부처님은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3. 운전을 하는 손잡이 4. 경주의 고찰로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절 5. 국경 상 중요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투표 6. 전북에 있는 도시로 요즘 백제기장 설립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0. 착한 마음 12. 아내는 삼촌 13. 악미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칼을 사용하는 방법 17. 아래로 중생을 교화함 18. 계를 받들어 지남 20. 정도에 왕성하는 이가 없는 연화대 21.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여 주는 계승 22. 불혹은 몇 세? 23. 대리인 25. 기운이 왕성함.

##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지스기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蔘 120가지 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산으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장애,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체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용기를 祈願  
드리으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 육법등 (六法燈)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시후 49년과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